

‘택시운전사’속 그 기자 전시로 만난다

광주시청 시민숲 21일~9월 3일 사진전
힌츠페터 유품 안경·여권

광주 언론인들의 5·18 활동 기록

브리사 택시 등 영화 소품도 전시

5·18문화센터 21일~9월 14일 ‘5·18 유산’전

5월 항쟁 영상·보도사진 등 200여점 선보여



‘택시운전사’ 촬영에 사용된 ‘브리사’ 택시.



힌츠페터가 촬영한 광주항쟁 모습.



위르겐 힌츠페터가 촬영한 1980년 5월 당시 전남도청 모습.

1980년 5월 20일, 택시운전사 ‘김사복’과 함께 광주로 들어온 독일 기자 위르겐 힌츠페터는 죽음을 무릅쓰고 광주의 현장을 카메라에 담는다. 두 실존 인물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택시 운전사’는 관객 900만명을 돌파하며 많은 화제를 모으고 있다. 택시운전사 역을 맡은 송강호의 명불허전 연기와 함께 로만 폴란스키 감독의 ‘피아니스트’(칸국제영화제 황금종려상 수상)에서 강력한 인상을 남긴 독일 배우 토마스 크레취만의 연기 역시 인상적이다. 힌츠페터 역을 맡은 그는 광주의 진실을 앵글에 담은 기자로 동분서주하는데, 그가 영화 속에서 쓰고 있는 안경은 바로 힌츠페터의 유품이기도 하다.

영화 ‘택시 운전사’의 실제 인물인 독일 외신 기자 고(故) 위르겐 힌츠페터를 기리고 5월 광주를 기억하는 전시회가 잇따라 열린다.

광주시와 광주전남기자협회는 ‘아! 위르겐 힌츠페터 5·18광주전신전 그리고 택시운전사’전을 오는 21일부터 9월 3일까지 시청 1층 시민숲에서 연다.

5·18 광주의 진실을 세계에 알린 힌츠페터 기자의 활동을 소개하고 군부폭압에 맞서 싸운 언론인들의 활동을 알리기 위해 마련된 이번 전시에서는 힌츠페터가 5월 광주의 참상을 촬영한 사진, 동영상과 함께 5·18 당시 광주 언론인들의 활동을 담은 기록들도 만날 수 있다.

‘택시 운전사’에 사용된 소품 등이 전시되는 점도 눈길을 끈다. 제작진은 총 제작비 150억원 가운데 택시 등 소품을 통해 1980년대를 재현하는 데만 118억원을 투입할 정도로 심혈을 기울였다.

전시에서는 영화 촬영에 사용된 카메라, 안경, 여권 등 소품들을 전시할 예정이며 이중 안경과 여권은 힌츠페터가 사용한 진품으로 부인이 이번 전시회를 위해 특별히 배려한 것이다.

특히 영화에 등장한 브리사 택시도 만날 수 있다. 영화 속에서 송강호가 몰던 브리사 택시는 일본 마즈다 패밀리카를 기본으로 개발된 기자자동차 최초의 승용차로 1974년 처음 만들어졌다 1981년,전두환 신군부의 산업합리화 조치에 의해 강제 단종됐다.

제작진은 ‘희망’과 ‘평화’의 이미지를 택시에 담아 ‘화사한’ 느낌의 연두색으로 차체를 도색했다. 당시 택시 색을 기본으로 했지만, 광주 항쟁을 누비며 얼룩진 역사를 기록해 세상에 알리는 ‘희망’을 담아 실제보다 채도를 올린 연두색을 사용했다.



영화에서 독일 기자 역을 맡은 토마스 크레취만이 착용한 안경은 힌츠페터의 유품이다.

이 택시는 ‘택시운전사’ 촬영 후 송강호가 출연하는 또 다른 영화 ‘마약왕’에 등장하며 흰색 자가용으로 색을 바꿨는데, 이번 광주 전시를 위해 연두색으로 도색하고 영업용 택시로 원상 복구해 시민들을 만난다.

영상과 사진 등 기록물은 힌츠페터가 2005년 광주를 방문했을 때 “죽으면 이곳에 묻히고 싶다”는 말과 함께 5·18기념재단에 전했던 자료 일부다. 지난 2016년 세상을 떠난 고인의 뜻에 따라 그의 손톱과 머리카락 등 유품은 망월동 5·18 옛 묘역에 안치됐다

전시에서는 전남도청 앞 시위 모습, 시신 앞에서 울부짖는 유가족의 모습, 트럭을 타고 구호를 외치는 광주시민의 모습 등을 만날 수 있다.

5·18기념재단은 오는 21일부터 9월 14일까지 5·18기념문화센터에서 5·18기획전 ‘5·18, 위대한 유산 : 시민, 역사의 주인으로 나서다’를 연다.

영화 ‘택시운전사’의 흥행으로 1980년 5월, 광주의 이야기가 주목받는 가운데, 시민의 참여로 이뤄낸 5·18을 기억하기 위해 마련한 전시다.

당시 광주의 상황을 담아낸 사진기자 나경택, 이창성기자의 사진으로 5·18의 전개과정을 구현하고, 5·18사진기록 속에 드러난 택시의 모습을 찾아 볼 수 있다. 21일 오후 4시 30분 열리는 전시 오픈식에는 두 기자와 시민의 일원으로 활동했던 당시 택시기사들을 초대해 소회를 듣는 시간도 마련한다.

광주시청과 5·18기념문화센터는 도보로 이동 가능하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고미술과 뉴미디어 아트의 만남

‘미디어 338’ 김혜경 작가 31일까지 ‘미디어 樂락’전



‘미디어 樂락’

예술과 미디어가 결합한 융·복합전시 공간 ‘Media 338(빛고을아트스페이스 2층)’에서 하반기 아카이브 릴레이전 ‘미디어 樂락’ 1차 전시가 진행된다.

16일부터 31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 참여작가는 김혜경씨로 공모를 통해 선정됐다.

김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동아시아 고미술에 담긴 노장사상과 전통, 뉴미디어 사이의 관계를 융합한 작품을 선보인다.

전시작품은 총 5개로 조선시대 대표적 도자기인 백자와 분청사기를 모티브로 고미술과 뉴미디어 아트의 접점을 실험한 ‘미디어 樂락’, ‘백면 위에 키네틱 센서’를 달아 관람객들이 손바닥으로 도교에서 장수를 상징하는 십장생들을 터치해서 찾는 체험형 인터랙티브 작품

‘터치 해븐(Touch Heaven)’ 등을 만날 수 있다. 또 ‘미디어 寶貨(보화)’는 과거의 도자기와 구구가 뉴미디어를 통해 현대의 보물로 인식됨을 빛으로 보여주는 작품이다.

서울 출신인 김 작가는 동양미술의 요소들을 미디어아트에 접목시키는 독창적인 작업을 연구해온 작가로 홍익대 디지털 미디어 디자인전공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한양 비주얼&멀티미디어 대학원 석사과정을 수료했으며 한라대와 광운대에 출강하고 있다. 2014년 일본 오사카한국문화원에서 열린 ‘MEDIA 間문’ 등 다양한 나라에서 전시에 참여했다. 오후5시 오픈닝 행사를 진행한다. 무료관람. 062-670-7492.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전남대병원 서양화가 차향기 초대전

내달 3일까지
CNUH갤러리



▶‘베타야 놀자’

전남대학교병원(병원장 윤택관)이 서양화가 차향기씨 초대전을 다음달 3일까지 병원 1동 로비 CNUH갤러리에서 개최한다. ‘베타 사랑 오방색 향기차람’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 차씨는 동남아 지역에 주로 서식하는 태국의 관상용 물고기 ‘베타’를 의인화한 작품 20여점을 선보인다.

크기가 작아 방어적인 베타는 화려한 전라남도 남부 미술대전 특선, 대한민국 지느러미로 자신을 과시하며 방어하고 다른 물고기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진 물고기다. 작가는 행운을 상징하기도 하는 베타

를 통해 이기적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사랑과 화합을 갈망하는 인간의 삶을 표현하고 있다. 특히 ‘베타야 놀자’ 연작에 등장하는 색동옷 입은 한 쌍의 베타는 마치 동화 속 한 장면을 연상시키며, 황·청·백·적·흑의 오방색을 통해 아름다운 판타지아를 표현하는 듯하다.

조선대 미술대학을 졸업한 차 작가는 전라남도 남부 미술대전 특선, 대한민국 여성미술대전 금상 등을 수상했다. 현재 한국미협회원으로 활동중이며 그림여행 미술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문의 062-220-5104. /김미은기자 mekim@

키농샤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2017년 8월호

7월 31일 발행
구독신청 : 062-220-0550
팩 스 : 062-222-0195

어촌의 여름을 즐긴다

-바지락 맛조개 갯벌 체험, 태안 병술만 마을
-달빛 아래 흰 상사화와 해변 산책, 위도 별금마을
-옛 당집과 신기한 해녀 체험, 울산 주전마을

보성에서의 여름휴가 활력 충전 100%
맛 맛 역사 자연 두루 갖춘 가족여행지로 각광

노홍준의 꿈의 여행
인도양에 떠있는 천혜의 섬나라, 세이셸

문화 화제
브런치 콘서트, 달콤한 인기
“음악, 나누면 더 행복하죠”
오디오 마니아 건축사 최경양 씨

여행이 만난 이 사람
송정동에 ‘문화와 정돈’ 퍼트리는 협동조합 이공
트레이드를 터닝 포인트 삼은 KIA 1번 타자 이명기

매망 초대석

60년 소리 인생 판소리 명창 안숙선

“소리 공부는 끝없어 매일 수련”

대한민국 식물명인
대나무의 기 담긴 천년 명주의 맥 잇고, 세계의 술과 어깨 나란히
추성주 명인 양대수

동네 책방에 빠지다
-책방별곡(2)

트렌드 따라잡기
마성의 1인 영상미디어
“한번 빠지면 나오기 힘들어”

음식과 문화
목공예·떡살 전문가 이상국씨가
고안한 새로운 원형 떡살

정문수의 위대한 예술가들의 재향과 신작
현대 미술계의 두 여성 스타
바비라 크루거 Vs. 신디 셔먼

베트남의 대중문화 X파일상
김태호·나영석,
진행형 레전드 예능PD!

드론으로 본 세상
더위 가르며 바람 질주

국가어항 르네상스 프로젝트(2)

남도 스타북
구경
천세, 환방동계 탁치가 사는
생명의 창경갯벌